

U.S. Daily Briefing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06.09.(금) 제23-064호

- ◆ **[Focus]** 글로벌 EV 시장 전망(Electric Vehicle Outlook) 및 시사점
- ◆ **[What's News]**
 - (대중견제) 美 의회, 무역 구제 (Trade Remedy) 강화 법안 제출
 - (수출입) 美 상품 수출, 세계 수요 둔화로 인해 4월 급감
 - (무역) 美 상의, 세관에 무역원활화를 위한 우선순위 제안
 - (철강) OECD, 비시장적 관행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악화
 - (입법동향) 탄소배출 강도 조사 법안 'Prove It Act' 발의
- ◆ **[Top Headlines]**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전기차] 글로벌 EV 시장 전망(Electric Vehicle Outlook) 및 시사점

1. 개 요

□ 블룸버그NEF, 글로벌 EV 전망 보고서 발간(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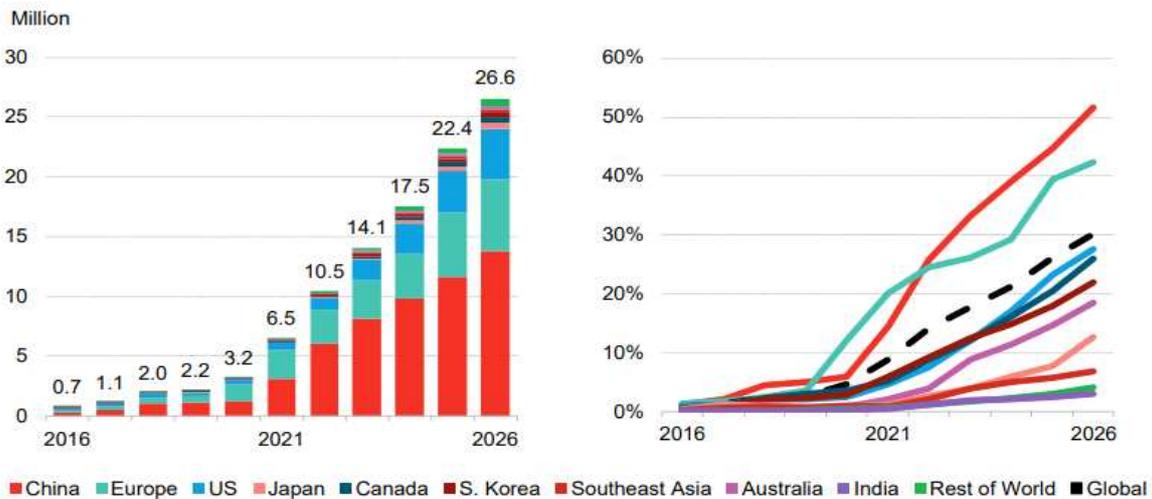
- 글로벌 승용차 시장에서 유일한 성장 영역으로 전기차 시장 주목, 신규 연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분석과 전망 발표
- 승용차 시장 내 EV 분야는 유일하게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견인 중, EV 변혁을 운송 및 자동차 분야의 중대한 변화의 시기로 인식
- 전 세계 승용차, 상용 밴 및 트럭, 이륜차 및 삼륜차, 버스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연료 전지 등 타 파워트레인을 포함한 전기차 채택은 확대 추세
- 운송 부문 전기화에 따른 시장 전망, 내연기관 시장 및 배터리 공급망 변화, 충전 인프라 및 CO2 배출 영향 등 여러 유의미한 분석 내용 제공

2. 보고서 주요 내용

□ 글로벌 EV 시장 전망

-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향후 수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2030년에는 전 세계 승용차 판매량의 44%, 2040년에는 75% 점유 예측
- 세계 EV 판매량은 2022년 1,050만 대에서 2026년 2,700만 대 등 가파른 상승을 전망했으며 신규 승용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 또한 2022년 14%에서 2026년 30%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
- * 2035년까지 급증 이후 주요 전기차 시장 포화로 2030년대 후반에는 성장세 둔화 전망
-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효과로 2022년 7.6%였던 EV 승용차 판매 비중이 2026년에는 거의 28%에 달할 것으로 예상, 중국 52%, 유럽 42%(북유럽은 89%, 독일은 59%) 등 일부 지역의 자동차 시장은 보다 빠르게 전기차 시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

<세계 EV 승용차 판매량 및 시장별 신규 EV 점유율>



[자료: 블룸버그N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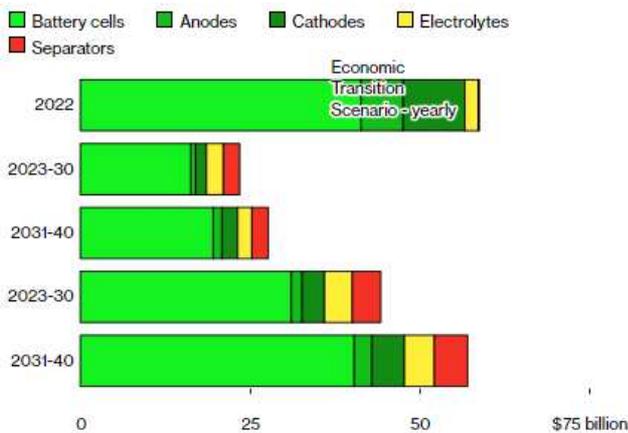
- 내연기관 차량 판매량은 이미 정점,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 확인
- 여러 형태의 EV는 오늘날 이미 하루 150만 배럴의 석유를 대체 중, 이후 더욱 증가해 2027년에는 운송 연료 수요가 정점에 이를 전망
- 2025년 이후에는 디젤에 의존하는 대형 트럭 및 상업용 차량을 제외한 이륜차, 삼륜차, 버스 뿐 아니라 승용차 수요 역시 감소세 예측

□ 배터리 공급망 및 탈탄소화 목표

○ 배터리 공급망 확대 및 리튬 공급 문제

- 보고서는 EV 시장 전망에서 새로운 정책과 규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기술 발전 동향과 시장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분석
-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은 수요 대비 모든 영역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다행히 일부 영역은 이미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
 - * BNEF는 수요 대비 매년 배터리 및 부품 공장 투자에 약 240억~570억 달러 필요, 2022년 지출은 이를 넘어서는 총 590억 달러 기록
- 리튬은 2050년 까지 수요가 약 22배 증가, 더 많은 공공 충전소 구축과 배터리 재활용 등이 배터리 공급망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
 - * 나트륨 이온 전지 상용화, 가시화되는 고체 배터리 및 차세대 양극재 개발 등이 리튬 공급망 문제 해소에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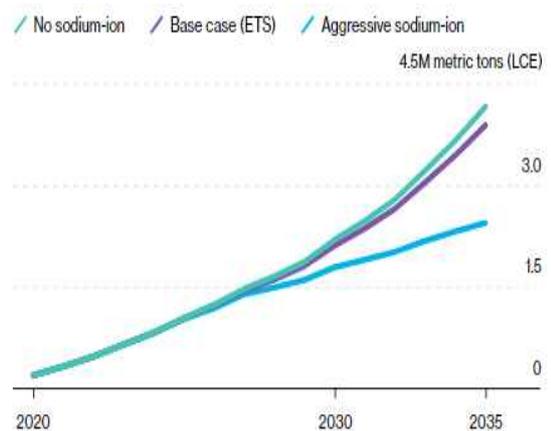
<시나리오별 연간 배터리공장 투자필요 금액>



* 순서대로 '배터리셀,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기'

[자료: 블룸버그NEF]

<나트륨 이온 배터리 사용과 리튬 수요 변화>



[자료: 블룸버그NEF]

○ 전기차 시장 증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대 및 탈탄소화 노력

- 보고서의 경제전환시나리오(ETS)에 따르면 전기차 상용화는 2050년 전 세계 전력 수요에 약 14%를 증가시키고 탄소중립(Net-zero) 시나리오에서 약 12%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는 수소 생산을 위한 전해조 사용뿐만 아니라 난방, 산업의 전기화 등 다른 부문의 추가 전력 소비가 포함되어 일부 효과가 상쇄

3. 전망 및 시사점

□ 글로벌 EV 전망 및 시사점

○ 블룸버그 통신은 'Four Takeaways on the Future of the Global EV Market' 기사에서 글로벌 EV 시장에 대한 4가지 시사점 제시

1) EV 판매 증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

- 2022년 전 세계 평균 전기차 판매는 60% 이상 증가, 인도 및 동남 아시아 200% 이상, 일본 100%, 중국 95%, 호주 90%, 미국 50% 등

2) 전기자동차로 인한 자동차 분야 탈탄소 비중 가속화(표1)

- '22년 기준 전체 발전량에서 탄소중립에너지(태양열, 풍력, 수력, 원자력)의 전력생산량 비중은 40% 선이며, 승용차 주행거리 중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2050년에는 양자가 비슷한 비율(75%선) 도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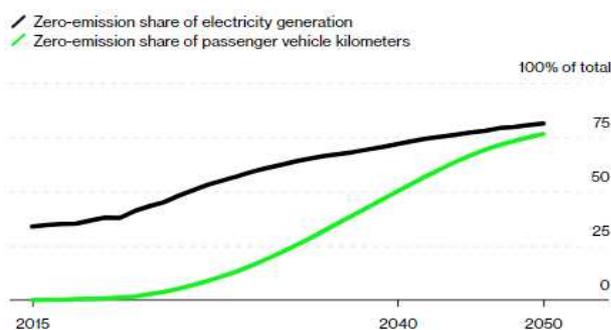
3) 롱레인지(long-range) 뿐 아니라 더 짧은 거리(lower-range) EV 차량 출시

- 2018년 기준 400km(249마일) EV는 9개, 현재는 200개 이상으로 증가, 모든 시장에서 장거리 EV모델은 증가 추세이지만 상당히 비싼 가격
-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EV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짧은 주행거리의 보급형 차량도 시장에 많이 출시할 것으로 전망

4) 수소 연료 전지자동차 시장 동향(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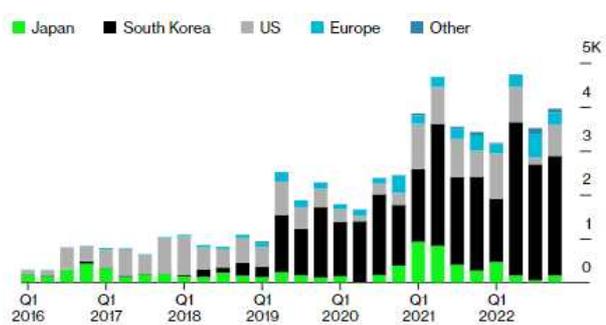
- 2022년 기준 16,000대 미만의 매우 작은 시장으로, 승용 연료 전지차 시장의 3분의 2는 한국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18% 순

<표1> 무공해 발전원 및 무공해 차량 탄소중립 비율



[자료: 블룸버그NEF]

<표2> 주요 시장별 연료 전지 자동차 판매량



[자료: 블룸버그NEF]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 블룸버그NEF(6.8), 블룸버그(6.8), TheEconomicTimes(6.8)

□ **(대중경제) 美 의회, 무역 구제 (Trade Remedy) 강화 법안 제출**

- (개요) 상·하원, 'Leveling the Playing Field 2.0 Act' 법안 제출 예정
 - 해당 법안은 지난 117대 의회에서 셰리드 브라운과 로버트 포트만 상원의원이 발의해 입법 추진했으나, 최종 통과에 실패한 바 있음
 -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 구제법 개정으로 중국 등 불공정 무역을 규제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상세) 국내 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방위적 수입 규제 엄격화 추진
 - 반덤핑·상계관세 연계 조사(successive Investigation) 제도 신설 : 현재 조사 중이거나, 또는 최근 조사(2년 내)가 끝난 동종 품목에 대한 제3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신속 약식 진행 가능
 - 외국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력 강화: 국경 간 보조금(Cross-Border Subsidy)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제도화
 - 반덤핑·상계관세 우회(Circumvention) 방지: 상무부 우회덤핑 조사에 법정 절차 및 기한 수립 등 규제 강화
 - 외국의 환율 조작을 통한 수출 경쟁력 왜곡 행위 규제: 외국의 환율 조작 포착 시 반드시 환율 상계관세 조사 시행 명령
- (전망) 양원(Bicameral)의 초당적(Bipartisan) 지지 속에 입법 기대 고조
 - 여야 중진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 통과 가능성 커짐
 - * Amy Klobuchar (민-Minn.), Mike Braun (공-Ind.), Tammy Baldwin (민-Wis.), Tommy Tuberville (공-Ala.), John Fetterman (민-Pa.), Bob Casey (민-Pa.) 등
 - 현재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중 경쟁법 2.0' 법안에 패키지 형태로 포함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 PoliticoPro(6.7)

□ (수출입) 美 상품 수출, 세계 수요 둔화로 인해 4월 급감

- (개요) 미국 4월 무역 적자, 지난달보다 23% 증가한 746억 달러
 - 미국의 수입 증가와 더불어 상품 수출이 세계적 수요 둔화로 부진
 - 4월 수출은 2,490억 달러로 3월 수출보다 92억 달러 감소했으며, 수입은 3,236억 달러로 3월 수입보다 48억 달러 증가
- (상세) 미국 무역 적자 6개월 만에 최대, 수출은 감소했으나 수입은 증가
 - 미국 경제분석국은 4월 상품 및 서비스 적자가 746억 달러로 3월의 606억 달러보다 140억 달러 증가(+23%)했다고 발표
 - 美 서비스 수출 중 관광분야의 강세가 유지, 월간 최고치 경신(14.2억 달러)
 -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가 미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망하는 가운데, Business Roundtable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3월 예상치(1.4%)보다 소폭 상승한 1.5%로 전망(6.7)
- (참고) 미국의 대중 무역 규모, 감소 추세
 - 미중 무역은 올해(1~4월) 1,59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2,270억 달러) 대비 30.0% 감소한 수치
 - 미중 무역은 '22년 사상 최대 기록 후 감소 추세로 이는 대부분 미국의 대중 수입감소에서 기인
 - 한국의 대미 1분기 무역 수지는 91억 달러 흑자를 기록
 - *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전년동기(1~4월) 대비 7.5% 증가한 14억 달러 기록

<2023년 4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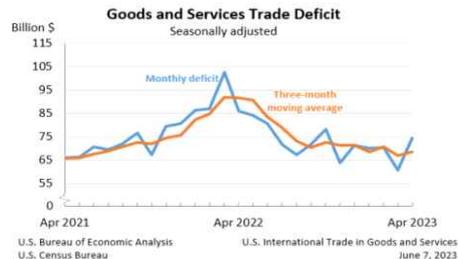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Deficit

Deficit:	\$74.6 Billion	+23.0%°
Exports:	\$249.0 Billion	-3.6%°
Imports:	\$323.6 Billion	+1.5%°

Next release: Thursday, July 6, 2023

(°) Statistical significance is not applicable or not measurable. Data adjusted for seasonality but not price changes

Source: U.S. Census Bureau,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June 7, 2023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

- | | |
|-------|---|
|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한유림 |
| ■ 자료원 | Politico(6.7), BEA(6.7), Bloomberg(6.8) |

□ [무역] 美 상의, 세관에 무역원활화를 위한 우선순위 제안

- (개요) 의회의 세관현대화 입법에 앞서 관세국경보호국(CBP)에 우선순위 제안
 - 상공회의소는 통관 과정 간소화 및 현대화를 위해 관세당국에 적절한 권한 부여, 강제노동생산품 및 위조품에 대한 탄력적 대응 방안 등 정책제안을 담은 서한 발송
 - CBP의 21세기 관세 프레임워크(21CCF)를 통한 세관현대화 논의에 더해 의회에서의 무역 현대화 입법 시 고려할 사항에 중점
- (상세) 18개 항목으로 더 광범위한 기관 간의 정보공유, 데이터 수집 방식 등 제안
 - (통관 절차에 대한 정부 정책) 분산된 연방정부 기관들의 정책을 통일한 중앙집중식 정책과 CBP를 통한 규제 절차, 기존 문서 기반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반 프로세스로 현대화할 전담 기관 지정 등 제안
 - (강제 노동 대응) 수입업체가 공급망에 강제 노동이 의심되는 부분을 식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CBP에 선적 거부 사유 및 구성 요소 공개
 - (데이터 수집 기준 설립) CBP가 기업으로부터 특정 데이터를 제공 받아야 할 이유와 사용 용도를 안내하는 명확한 표준 수립 필요, 기밀 유지를 위한 보호기능 필요
 - (신속 배송 섹터 코드화) 필요한 의약품과 소비재를 가능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 (301조 관세 환급) 301조 관세 면제가 승인된 회사들은 이미 지불한 관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료된 CBP의 환급금 처리 법적 권한 재부여
 - (위조품 대응 지원) 위조 상품의 역류와 압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부문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추가 조치 제안 등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박소현
▪ 자료원	미국 상공회의소(66)

□ (철강) OECD, 비시장적 관행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악화

- (개요) OECD,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관련한 공동 성명 발표(6.8)
 -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의 원인을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과 비효율적 기업 지원 등을 꼽으며 공급과잉이 전 세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
 -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글로벌철강포럼(GFSEC)*의 정책 수립 및 국제적 공조 조율 등 역할 이행 요청
 - * 철강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글로벌철강포럼 : 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 (상세) '25년에는 약 6억 4천만 톤의 철강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
 - GFSEC은 철강업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실을 다져야하는 현 시기에 정부 소유 업체들의 생산확대가 공급과잉을 악화시킨다 지적
 - 철강산업은 현재 전 세계 탄소배출의 8%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 측면에서도 GFSEC의 공급과잉 문제 해소 노력 필요
 - GFSEC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EU 등 OECD 24개국이 참여, 중국은 GFSEC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 (비고) 성명서에 중국 언급은 없으나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언론은 분석
 - 성명서는 정부 지원 등 비시장적 관행에 대한 비판 위주이며, 미국은 중국이 공급과잉의 주역이라고 기존에 비판한 바 있음
 - 미국철강협회는 중국 등 GFSEC 외 국가의 공급과잉이 환경에 주는 역할을 주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냄
 - * 또한 미-EU GASSA 협상에서 공급과잉 및 탄소집약도 논의가 중요하다 강조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장석일
■ 자료원	GFSEC 성명자료(6.8), Politico(6.9)

□ (입법동향) 탄소배출 강도 조사 법안 'Prove It Act' 발의

- (개요) 미국산 제품과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강도 조사법 'Prove It Act' 발의(6.7)
 - 크리스토퍼 쿤스(Christopher A. Coons) 상원의원은 미국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Prove It Act'* 법안 발의
 - * Providing Reliable, Objective, Verifiable Emissions Intensity and Transparency Act
 - 쿤스 의원은 이번 노력이 “미국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과 같은 국가가 철강처럼 배출량이 많은 제품 생산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언급
- (상세) 에너지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배출 강도 조사, USTR 등과 협조
 - 미국 에너지부가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협력, 미국이 생산하는 특정 제품의 탄소 배출 강도와 다른 국가가 생산하는 동일한 상품의 탄소 배출 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연구하도록 명시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리튬 이온 배터리, 태양 전지 및 패널, 핵심 광물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최근 USTR이 ITC에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의 탄소 배출 강도에 대한 연구를 요청한 이후 발표됨
 - 쿤스 의원은 “향후 기후법을 채택한 동맹국 그룹인 ‘탄소 클럽(carbon club)*’을 만들어 협력을 강화할 계획” 언급
 - *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유럽 연합, 영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및 호주 언급
- (반응)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에는 국내 탄소세 도입 여부가 관건
 - 기존 미국의 탄소국경제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우려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국내 탄소세 없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 보도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 폴리티코(6.7), 워싱턴포스트(6.7), 인사이드트레이드(6.8)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Democrats Push for Debt-Ceiling Overhaul Bill After Default Scare (디폴트 위기 후... 민주당, 부채한도법 개정 추진)
	민주당, 이번 디폴트 위기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 강력.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3분의 2가 찬성한 결의안 없이는 재무부의 지급행위 중지 불가
The Washington Post	With debt debate over, House GOP unveils bills to cut taxes for business, some families (공화당, 기업 및 일부 가정 세금 감면 법안 공개)
	공화당은 기업의 세금 감면과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 가정에 대한 공제 확대, 소액거래 정부보고 제외 등을 담고 있음. 통과시 정부부채를 악화시킬 전망
New York Times	Trump Indicted (트럼프, 기소당하다)
	트럼프 기소 관련 문건이 공개. 트럼프는 핵 프로그램 및 공격 계획 등 기밀문서를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도 보유하는 등 38개 혐의로 기소.

* 미국 동부시간 6월 9일 17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17	IPEF 5월 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6월
US23-16	美 화석연료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5월
US23-15	6가지 통계로 보는 미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및 시사점	2023.05월
US23-14	미국 반도체 R&D 지원 정책 방향	2023.04월
US23-13	미 환경보호청(EPA)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4월
US23-12	미국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	2023.04월
US23-11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	2023.03월
US23-10	2024년 美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3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해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획6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4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12 (2023.5.31)	 <p>GSK 백신 전문가 '민지영' 박사 인터뷰 포스트 팬데믹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 R&D의 중요성!</p>	
코인시-11 (2023.5.8)	 <p>자동차혁신협회 'John Bozzella' 회장 인터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미래!</p>	